

# 융·복합, 건축, 현대미술 한 자리서 감상하세요

오늘 ACC 3개 전시 동시 개막  
해양도시 주제 '디어 바바노냐'  
'이음지음' 아시아 건축물 특성  
'가이아의 도시' 식물관계 사유

미술관 전시 관람으로 연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21일 융·복합 전시 '디어 바바노냐: 해양도시 속 혼합문화', 건축 전시 '이음 지음', 현대미술 전시 '가이아의 도시' 등 전시 3종을 동시 개막한다.

먼저 내년 6월 16일까지 복합전시 1관에서 펼쳐지는 '디어 바바노냐: 해양도시 속 혼합문화'는 아시아 도시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된 융·복합 전시다. 예술 작품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되는 아시아 해양도시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살피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소개한다.

디어바바노냐는 중국 이주남성과 말레이계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들을 일컫는 말에서 기원한다. 어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바바노냐는 기존의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인도·중국·유럽 등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롭게 만

들어진 혼합문화(Cross-Culture)를 의미한다.

전시는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아시아 해양도시 중 인도의 코치,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중국의 취안저우를 소재로 선택하고 있다. 바닷길에서 만난 이들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그 속에 녹아 있는 혼합문화적 특징들을 심미적으로 표현했다.

'이음지음'은 미술의 언어를 통해 아시아의 건축과 사회를 조망하며 함께 지어가는 의미와 공동체의 동력에 주목한다. 작품들은 건축을 소재로 창·제작됐으며 기둥 구조물과 중정, 회랑 등 아시아의 건축 특성을 담은 복합전시 2관 상상원의 공간적 특징을 더욱 활용했다. 전시는 내년 7월 21일까지 복합전시 2관에서 진행된다.

본 전시는 '아시아의 도시 경관' 들을 전시장으로 갖고 온다. 가까운 예로, 광화문에서 만나는 숭고한 옛 건축물들은 그 앞에 자리잡은 현대적 건축물들과 상존하며 도시 서울의 개성을 조화롭게 형성하고 있다. 전통의 흐름이 이어져 오는 동안 스며들거나 이웃하여 조화를 만들어 내는 '어울림'은 공존의 미학이다.

내년 2월 25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열리는 '가이아의 도시'는 자연을 대면



ACC 복합전시 2관에서 진행되는 '이음 지음'의 코이치로 아즈마 작 '무한차륜'.

ACC 제공

하는 '식물'과 문명의 주체인 '인간'의 관계를 사유하는 전시다. 가이아는 고대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모든 생명의 탄생과 성장,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을 관장하는 대지의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

번 전시에서 '가이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자기조절 시스템, 즉 '능동적 존재'로서의 대자연의 의미한다.

근대 시대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폭발은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인 관계로 분열시켰고, 인간의 우월함이 강조됐다. 그 결과 가이아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 등 자기조절을 통해 인간 중심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반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번 전시에 자연이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도시로 이주되고 변형되는 현상, 그럼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으며 인간과의 공존을 실천하는 식물의 능동적 의지를 다루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ACC는 관객들의 작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개막하는 전시 3종 모두 알기 쉬운 전시해설을 마련했다. '디어 바바노냐: 해양도시 속 혼합문화'는 오감 체험 콘텐츠를, '이음 지음'은 유현준 건축가의 음성 안내 및 수어 해설을, '가이아의 도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홍보물을 제공한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는 '전시 접근성 강화'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유형의 전시를 통해 따뜻한 연말과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김자이 작 휴식의 기술. 2019년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전시전경

## GB작가스튜디오탐방서 김자이 작가 소개

28일 광주비엔날레 유튜브

(재)광주비엔날레는 올해 마지막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김자이 작가를 만난다. 김자이 작가 작업실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은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에 오는 28일 공개된다.

12월 작가스튜디오탐방 영상은 김자이 작가의 작업을 관통하는 이야기와 대표 작품들로 구성된다. 작업 주제인 휴식의 선택 이유를 살펴보고, 작가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조응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김자이 작가는 휴식에 대한 화두를 탐색하면서 내면 이야기에 대한 답을 다양한 조형언어로 표현해오고 있다. 작가 개인적 투병생활에서 시작된 휴식이라는 키워드 작품들은 '나의 휴식 방법'이 외부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소통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대학교 판화미디어과를 전공한 김자이 작가는 런던 킹스턴대학교 아트&스페이스에서 석사를 졸업, 조선대학교 미술학부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김 작가는 '생태미술프로젝트(2023)', '휴식의 기술(2020)' 외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

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작가스튜디오탐방 프로그램 목적인 작가 연구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기 위해 김 작가를 박정애 평론가와 매칭했다. 박정애 평론가는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발행 학회지 '미술과 교육'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는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보편성의 미학: 세계화와 한국 미술' 등이 있다. 김자이 작가에 대한 박정애 평론가의 연구 결과물은 오는 28일 영상 공개일부터 (재)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작가스튜디오탐방은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을 통해 지역작가에 대한 소개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일 작가 인터뷰 영상이 (재)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지난 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임남진(10월), 윤세영(11월) 작가를 진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 광주대 문예창작과 11명, 웹소설 출판사 등과 연재 계약

“웹소설 작가 데뷔 적극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문예창작과 재학생 11명이 올해 웹소설 출판사 및 CP업체와 연재 계약을 체결하는 역대 최고 성과를 올리며 웹소설 특성화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상반기 23학년 신입생 2명이 웹소설 출판사 중 프로모션 순위 5위권 안에 드는 파피루스와 작품 연재 계약을 체결했다.

19학년 1명이 로크미디어가 주관한 대학생 웹소설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면서 연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7학년 1명과 21학년 2명은 최근 주목받는 신생 업체로 문예창작과와 협력 관계에 있는 출판사 봄미디어와 계약이 성사됐다.

하반기에는 문예창작과 웹소설 전문가 특강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학생

들이다우키움그룹 산하 키다리스튜디오와 계약을 체결한 성과가 두드러진다. 학과 추천을 통해 독자적으로 계약한 20학년 1명 외 20학년 1명, 22학년 2명이 작가로 데뷔할 기회를 얻었다. 스튜디오 시리얼과 공동으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18학년 1명이 입상, 작품 연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계약 체결 성과를 이뤄내거나 기존 작가로 데뷔했던 재학생들 역시 플랫폼 연재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판타지 세상에서 작가로 살아가는 법'으로 노벨피아 추천수 100만 건을 돌파하며 성황리에 연재를 마친 바 있는 22학년 두부두부(필명)는 5월 신작 '아카데미 야생인이 들어왔다'를 연재하면서 현재 25만 건 추천 수를 기록했다.

봄미디어와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재학생들 역시 네이버시리즈를 통

해 웹소설 연재에 돌입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17학년 졸업생 대문어(필명)의 '검술 천재가 계속 죽음', 19학년 렌비(필명)의 '창살명가의 사생아가 되었다', 21학년 민트삼겹살(필명)의 '전직 조폭이 연기를 잘함' 등이 신인 작가의 데뷔작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문예창작과에서 3개 업체와 협업해 진행한 웹소설 작가 발굴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둔 결과다.

조형대 문예창작과 학과장은 "학생이 열의를 갖고 창작에 임하면 웹소설 작가로 계약 후 데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과 시스템이 정착됐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업계 수위 기업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성과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 광주시립미술관, 23일 독립영화 상영·크리스마스 콘서트

광주시립미술관은 특별전시 '생태미술 프로젝트' 부대행사로 '독립영화 상영회'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먼저 오전 10시 시작하는 독립영화 상영회에서 '씨앗의 시간'을 상영한다. 이번 영화 상영은 광주시립미술관과 (사)토종씨드림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사)토종씨드림은 토종씨앗과 전통농업을 소재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단체들과 토종씨앗 수집에서부터 증식, 교육, 활성화를 꾀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설수안 '씨앗의 시간' 감독은 "토종씨앗을 지켜온 것은 특별한 사명감도, 지식도 아닌 노동에 충실해 온 삶의 태도이자 그



광주시립미술관 특별전시 '생태미술프로젝트'에서 전시작 모티브가 된 (사)토종씨드림의 토종작물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들의 손'이라며 "생산성'이라는 미명 하에 경시돼 온 삶의 노동을 담았다"고 말했

다. 영화 상영에 이어 (사)토종씨드림의 변현단 대표가 (사)토종씨드림의 활동을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강당한편에서 작은 토종장터도 마련된다.

오후 3시 미술관 로비와 복라운지에서 전시관람객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프라노, 바리톤, 전자바이올린 연주자, 스트리트 댄스팀으로 구성된 앙상블 'ARCO'가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객에 크리스마스 기념품도 제공한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 문화행사와 연말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